

# 광주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태양광 조성 '삐걱'

### 사업자 선정부터 법적 분쟁 휘말려 지지부진

### 지난해 착공 못해 ... 공사지연 따른 갈등 우려

광주시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민간 투자 공모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단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를 넘기는 등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매립장 위에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지만, 입자 선정에서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7만9000여㎡의 매립장에 민자262억원을 유치, 1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공사에 들어가 2017년 말까지 12MW급을 설치한 뒤 운영 성과에 따라 8MW급 시설을 추가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이른바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하지만, 거액을 들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사업자를 선정한 광주시가 오히려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광주시는 1순위 업체를 결정했지만, 탈락

한 2순위 업체의 반발로 광주시가 감사에 착수하면서 한달 남짓 사업자 선정이 지연됐다. 탈락한 2순위 업체는 선정된 업체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충족시키는 지역계 약법에 따른 투자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업체는 곧바로 광주지법에 협상 대상자 선정 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으며 선정절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은 최근 기각됐다. 이에 대해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 아닌 전액 민자사업인 만큼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 결정 이후 광주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선 협상대상자 업체와 곧바로 실시협약을 하고 공사에 들어갈지, 아니면 본안소송 결과를 보고 추진할지를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소송결과를 본 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 프로젝트는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다.

한편, 사업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주시에 국책사업인 만큼 연내 착공을 요청한 바 있어 공사지연에 따른 부수간 갈등도 우려된다. 매립면적 26만2000㎡에 매립용량 4369㎡에 달하는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1993년부터 매립에 들어가 2004년 매립이 완료됐다.

## 네팔 광주진료소 설립 속도낸다

**방문단, 윤장현 시장 찾아 논의**

네팔에 들어갈 광주진료소 설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네팔 직업교육 기관인 CTEVT 람 하리 라미첸 대표, 마다브 쿠마르 네팔 전 국무총리 등 방문단은 오는 14일 오후 윤장현 광주시장을 찾는다. 양측은 점검에서 제2호 아시아 광주진료소 설립 상황과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광주진료소건립 사전조사 지원사업을 공모해 다문화 가족 지원과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희망나무를 지원단체로 선정했다.

지난해 8월과 12월에는 네팔에서 후보지를 조사하고 CTEVT 소유 건물에 무상 임차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광주진료소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동쪽 25km에 지어진 상부에 지어진 건물 1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개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4년 6월 20일 캄보디아 캄pong스푸주에 1호 진료소를 열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 벼 보급종 추가 신청 접수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이 2016년도 광주·전남지역의 벼 보급종 잔량 734t에 대해 11일부터 29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추가 신청 물량은 전국의 남은 잔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종자는 새일미 420t, 새누리 292t, 황금누리 211t, 운광벼 114t, 영호진미 81t, 수광벼 74t, 미품벼 55t, 오대벼 52t, 추청벼 37t, 칠보벼 37t 등 10개 품종 1373t이다.

신청된 종자는 2016년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우선 해당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품종인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확인한 후에 신청하면 된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이번 추가 신청물량은 지역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선착순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 경우 잔량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충장동주민센터 새청사 이전 11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4가 충장동주민센터를 찾은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받고 있다. 충장동주민센터는 이날 모든 이전작업을 마친 뒤 첫 업무를 개시했다. 지상 3층 규모인 신청사(면적 871㎡)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등 행정·교육·문화 공간을 갖췄다. 개청식은 오는 19일이다. <광주시 동구 제공>

## 박대통령 내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

**북핵 강력 대응·핵심법안 처리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 표명과 함께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등 핵심법안 처리의 절박함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담화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집권 4년차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구상을 보다 상세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연국 대변인은 1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는다"며 "담화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의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실험이 동북아 안보지형을 흔들는 주요 변수로 부상한 만큼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근간으로 한 미일 3국 공조,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핵심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비판하면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점 높아가는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 정책법안의 처리를 통해 4대 구조개혁 추진에 힘을 실어줘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



## 무안공항 이용객 매년 늘어 ... 올 40만명 넘을 듯

**중 관광객 증가 영향 저비용항공사 유치 추진**

중국 관광객 증가로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올해 4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무안공항에는 중국 북경과 푸둥 등 국제정기노선 2개, 제주도 정기노선 1개와 베트남 카오슝,

다당 등 부정기 노선 7개 등 모두 10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중국 관광객이 늘면서 이용객이 지난해 32만 여명에서 8만 여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정기 노선(정기성 전세기·인바운드 전세기)이 봄, 여름 성수기에는 지난해 34개에서 약 4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안공항 이용객은 2007년 개항 이래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까지 대부분 10만명을 밑돌던 무안공항 이용객은 2013년(13만명)과 2014년(17만8000명) 2년 연속 10만명을 넘었다.

올해는 무안공항과 중국 산시성·장시성을 오가는 정기성 전세기가 오는 4월과 7월부터 각 3개월간 운항하는 등 중국 노선이 확충돼 각각 3000명 가량의 승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전남도는 예측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또 중국 정기성 전세기 노선을 정기노선으로 바꾸고, 중국과 무안공항을 오가는 저비용항공사도 유치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쇼핑·관광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정기노선은 손실액의 30% 이내, 정기성 전세기는 편당(도착기준) 300만~500만원, 인바운드 전세기는 왕복 1회당 500만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사)숲속의 전남, 수목 헌수·후원 받는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전남도의 민선 6기 대표 브랜드 사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의 민간 주체인 사단법인 숲속의 전남이 앞으로 수목 헌수와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11일 '숲속의 전남'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주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설립된 (사)숲속의 전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목 헌수와 후원 등 주민, 지역업체 등의 기부 활동이 가능하게 돼 '숲속의 전남' 만들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를 세액 공제를 받는다.

헌수와 기부는 (사)숲속의 전남 사무국 누리집(www.jeonnaminforest.co.kr)이나 시·군 산림부서에서 접수하며, 기증받은 수목과 헌금은 사회공헌형 숲 형태로 조성된다.

(사)숲속의 전남은 순수 민간 법인으로 임업인과 일반 주민 등 현재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올해 한 가정 정원 만들기, 자유헌기제 실시 등에 따른 청소년 숲 체험활동, 전남지역 아름다운 숲 탐방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 (서울대학교)
- 세무사

**변호사 곽민섭 법률사무소**

(062) 228 - 2266

광주 동구 지산로 70(동산빌딩 4층)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b>남</b> 의사, 변호사, 박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b>여</b>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연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태우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b>남</b>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b>여</b>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구 70m 441평 810 6층

(02) 521-4405

호남 (63) 275-7766